

남북통일 문제와 불교

法輪*

1. 머리말 - 21세기를 맞으며

얼마 전 우리 인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곳곳에서 축제를 벌였고, 새로운 희망의 세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1세기가 '세계화의 시대' 또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한다. '세계화의 시대'는 민족이나 국가 단위에 간혀 살았던 사람들이 전지구적, 전세계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생활하고 경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보화의 시대'라는 것은 산업시대와는 달리 정보 생산능력이 없는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이런 총체적인 변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민족에게도 21세기가 새로운 희망의 세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과연 21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세기일까? 지금도 20세기 유산인 민족분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수백만 동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21세기를 밝게 전망할 수 있겠는가?

돌이켜 보면 우리는 20세기의 시작을 나라를 빼앗기는 방향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로부터 많은 압박을 당했다. 일제는 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로 끌고 갔고,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끌고 가

* 좋은 벗들 이사장

서 총알받이로 사용했다. 또 100만이 넘는 젊은 노동자를 끌고 가서 탄광촌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러므로 당시에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민족의 자주독립이었다. 1945년도에 비로소 독립이 되었지만, 외세에 의해서 우리는 곧바로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다. 그리고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다.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 문제를 20세기 말엽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21세기로 끌고 넘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세기 초엽, 2010년까지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에는 세계 각국들과 더불어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이제 단순한 과거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현재적 과제이다.

2. 몸 말 — 화해와 통일은 세계사적 흐름

이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통일의 당위성 문제

(1) 한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은 인류사의 보편적 형태

꼭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민족이 두 개 이상의 국가를 형성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이 두 개 이상의 국가를 형성한 것은 대부분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 또 여러 개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기도 하지만, 과거 큰 민족에게 속박받고 살던 작은 민족들도 이제 거의 다 독립을 했다. 아직 독립하지 못한 민족들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독립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인류사적으로 보면 보편적 형태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어떤가? 전세계에서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민족은 현재 한민족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21세기는 동일한 문명권이 지역 공동체를 형성

외교정책 중에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이 있다. 가까이 있는 나라는 치고, 멀리 있는 나라와는 교류한다는 의미이다.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독일과 프랑스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싸웠다. 영국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20세기까지는 유럽 내에서의 경쟁에서 승리하면 곧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기에 주변국가들간의 전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벌이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세계의 주도권은 어느새 미국으로 넘어갔다. 군사적으로는 소련,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그들을 앞질렀다. 주변국가와 싸워 이기면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제는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서로에게 손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공동체였지만 지금은 단일 통화까지 이룩한 유럽공동체(EU)로 발전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의 정치체제를 형성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주변국에 사과하였고,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도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독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친구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현재 이런 추세는 유럽뿐만이 아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강대국인 미국마저도 서로 가까이 있는 나라끼리 협력할 때 공동의 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캐나다, 멕시코와 연대해 NAFTA를 결성했다. 앞으로 중·남미국가까지 포함하는 협력체를 2005년까지 만들려고 한다. 앞으로 중국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동남아의 화교들과 잘 결합해 나가서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고 이슬람 지역도 하나의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세계는 이렇게 동일한 문명권이나 가까운 지역간에 서로 협력하고 세계화의 시대에 대응하여 자국 이익, 지역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민족의 진로는 과연 무엇일까?

(3)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은 역사적 필연

국가 단위로 경쟁할 때 일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연합으로 나갈 때 일본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볼 때 한일간의 협력체제는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월드컵은 어쩌면 그런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들은 과거사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지난 시대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준 일본 과도 과거를 뛰어넘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하물며 제 동족인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새로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남과 북의 대립과 분열은 우리 민족에게 크나 큰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또한 남북의 대립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과거 세기의 잘못이 20세기 내내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듯이 우리들의 과오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 또한 21세기 내내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듯

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 할 수 있다.

(4) 1994년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기회였다.

사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던 1990년도에 이미 이룩되었어야 할 일이었다. 늦어도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전통 예법에 따라 조의를 표명하고 서로 인사하고 협력했다면 화해의 물꼬는 훨씬 일찍 터졌을 것이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그 때 북한이 붕괴될 조짐이 있다며 성급한 봉쇄정책을 폈다. 그러자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협에 직면해서 서울 불바다론 같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남북 관계는 대립적 관계만 고착화시켰다. 그 외중에 북한은 경제난과 식량난이 겹쳐서 (사)좋은 벗들의 공식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300만 명이 가까운 많은 동포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또 수십만 명의 동포들이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난민 생활을 해야 했다.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기고 두만강·압록강을 건너가 만주 벌판에서 갖가지 고통을 겪던 역사가 1세기가 지난 지금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사를 통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얼마나 현명하지 못한 짓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5)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사의 새로운 기회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떤 사람들은 남북 관계의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남북 관계 개선은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새 세기 벽두부터 남북간의 공동선언이 나오고 이산가족이 만나는 일들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은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은 일이지, 시기를 늦출 일은 결코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수 많은 고통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많아서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상처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될 때에는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성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한정된 시야로 인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살리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퍼주기’라고 비난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어 화해와 협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그 외중에 미국의 반복 정책과 국내 보수주의자들의 동조로 현재 남북 관계는 다소간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2)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

(1) 상고사의 정립

새로운 세기라는 시대적 배경 앞에서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것은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한 남북 문제 들여다보기이다.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비난하는데, 우리들 자신은 과연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알고 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 민족을 중국 변방에 있는 소수민족으로 알고 있고, 우리의 문화는 중국의 아류문화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만이 아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민족의 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어 문제만 따져 볼 때도 그 차이는 확연하다. 중국은 차이나 티베이어족이고,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족이다. 언어뿐만 아니라 중국과 우리

나라는 문명의 출발이 다르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환인시대로부터는 9000여 년이 되고, 환웅천황이 백두산 아래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기치를 내걸고 신시를 건설할 때부터는 6000여 년의 역사가 되고,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서 단군에 즉위한 시기부터는 43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장구하면서도 고유하고 독립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단군 조선의 역사는 여러 나라가 분립하는 열국 시대에 단군의 지위는 해모수의 부여로 계승되었고, 다시 고주몽의 고구려로 이어졌다가 고구려 멸망 후에는 발해가 고구려의 영역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켰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의 뿌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삼황오제를 이어 하·은·주를 거치는 5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의 뿌리에 해당되는 상고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학자는 부정까지 하고 있다. 인류사적으로 보면 문자가 발생하기 이전의 옛 역사는 대개 모든 문명권이 신들의 역사 즉 신화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옛 역사를 유물과 유적으로 증명하려는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유물과 유적이 남아 있기 어려운 시대의 역사를 유물과 유적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기록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대부분 소실되었고, 그 후 일부 발해가 복원을 했지만 발해가 멸망하면서 전부 소실되었다. 또 고려시대에 일부 기록에 남겨진 것마저 몽고의 지배를 받는 동안 대부분 소실되고 조선시대에는 스스로 중국에 사대적인 예를 취하면서 역사를 왜곡시켰다. 그나마 남아 있던 일부의 역사적 기록마저 일제시대에 대부분 소실되었다. 소실된 기록을 되찾기 위하여 중국의 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국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남의 나라 역사를 어떻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겠는가? 자기들이 들은 풍문의 일부를 변방 역사에다 기록해 놓은 것을 증거 삼아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면 당연히 우리의 역사는

중국 변방 민족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민족의 뿌리 부분부터 정체성이 혼돈되고 바른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 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지난 50년간 남북의 갈등만으로도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종종 간과하고 있다.

(2) 독립운동사의 올바른 정립

우리가 정립해야 할 역사는 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독립운동사도 새로이 정립하여야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일본 군국주의에 저항했다. 초기에는 대종교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였고, 그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소비에트가 제3세계의 약소민족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를 동경하여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그후 코민테른에서 일국 일당주의가 채택되면서 중국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 연해주, 즉 러시아 땅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일제에 대항해서 싸웠다.

광복이 되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꿈은 민족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군과 미군이 일본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이 땅에 진주하여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키고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 정부를 구성해서 장기적 지배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 때 남한에서는 친일세력들이 친미세력으로 둔갑하여 고스란히 등용되었다. 그러자 남한 사회 내에 많은 계급·계층·이념의 갈등이 생겨났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회주의 세력들은

남한에서 결국 친일세력들로부터 공산주의로 내몰려 침묵하거나 북한으로 가게 되었다. 북한에 있던 반사회주의자들 또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결국 남북은 각각 사회 내부에서 첨예한 계급, 계층간의 대립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다. 그후 남북은 각자 자기 체제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남한의 경우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기술하면서 사회주의적 경력이 있는 독립운동 세력이나 독립운동가들을 역사의 기록에서 빼 버렸던 것이다.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김일성 유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김일성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만 부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독립운동을 제외시킴으로써 결국 역사를 왜곡하고 말았다.

이러한 남북한 분단과 체제 경쟁으로 인한 역사적 왜곡의 결과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남한 국민들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모두 제외시킨 독립운동을 공부하다 보니 독립운동이라고 해 봐야 겨우 만세 부른 얘기, 폭탄 던진 얘기 등 몇 가지 사건을 제외하면 독립운동 활동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이 미국에 의해서 공짜로 독립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측적 상태가 생겨났다. 북한은 또 북한대로 지나친 사회주의적 예측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예측된 상태에서 우리들은 민족적 자긍심을 잃게 되었다. 바로 역사적 왜곡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 당한 것이다. 결국 남북한 대립으로 인해 독립운동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와 같은 것을 낳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는 우선적으로는 일본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의 반성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3)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민족사의 최대 과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남북간에 관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조금씩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우리의 먼 과거인 삼국 시대를 생각해 보자. 신라의 김유신과 백제의 계백이 결전을 해서 김유신이 승리했지만 우리는 패배한 계백도 오래 기억하고 존경한다. 그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먼 후손들이 이 시점의 역사를 살펴 볼 때 남북한을 과연 대립의 관점에서만 파악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 해나가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후손들은 민족적 자부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 별판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선조들의 눈으로 볼 때도, 수백만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어 가는데 그것을 돕지 않고 외면한 우리들 또한 역사의 준엄한 책임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우리 민족사의 최대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3)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길

남한만 보면 경제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겠지만, 민족 전체로 본다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이 시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하겠다.

(1) 화해와 협력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통일은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무조건 하나가 되자고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해야 한다. 이해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껴안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성폭력이 된다. 사랑은 이해를 기초로 되어야 한다. 상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도와주고 이해해 주며 아껴주는 바탕 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마음, 먹던 밥이라도 같이 나눠 먹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저 가난한 것들하고 같이 살면 내 밥그릇에 손해가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굶주림과 고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역사, 문화,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와 그들 사이의 화해를 낳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2)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

이렇게 형성된 화해를 기초로 하여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로 인한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화해와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통일 이후에 많은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이지만 가장 멋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민족적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세계 속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3) 북한의 지배자는 체제유지를 원한다.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두고 북한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즉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통치세력과 일반 민중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배자와 통치세력들은 체제 유지를 원한다. 그들은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직되어 있다. 만약 남한이 서둘러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북한의 지도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현실시점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도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50년 간 서로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갖은 전략과 전술을 쓰며 대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제의 안정적인 보장은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이다. 그런데 북·미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군을 결코 철수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바로 이것이 북·미간 그리고 남북한 사이 갈등의 근본 요소가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과거처럼 철수냐 주둔이냐 하는 것만 가지고 다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주한 미군은 유지하되, 그 지위를 평화유지군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한 미군이라는 구체적인 예민한 부분에 대한 이런 언급은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다 중요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주한 미군이라는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즉 현실적인 차선택들을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공중 충돌 사건 때의 중국과 미국의 대처 방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미국은 사과를 못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미국이 협상안으로 'Sorry'라고 표현을 제시했고, 중국은 그것으로는 약하다고 했다. 결국 미국이 'Very Sorry'라는 표현을 하고, 중국이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서로의 타협점을 찾았다. 중국은 중국대로 체면을 유지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실리를 챙겼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협안을 내면 양쪽에서 모두 '죽일 놈'이 된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조율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과 수교를 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금융기관이 대북 금융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또 일본은 북한과 수교를 하고 일제 시대 침략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도의 투자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외부적인 붕괴 시도는 포기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간의 군비 축소를 진행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논하면서 남한이 무기 현대화를 추구하고,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신무기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큰 모순이다. 이러한 남한

의 태도는 당연히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새로운 현대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있지만,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강요를 할 수가 없다. ‘떠주기’라고 비난받고 있지만 한 해 동안 북한에 지원하는 규모는 이런 무기 구입비의 1%도 안 된다. 대립과 충돌을 위한 무기 구입에 그런 엄청난 돈을 쓸 것인가, 화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같은 동포를 죽음의 고통에서 구해내는 데 투자할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4) 민중은 생존권 보장을 원한다

우리가 북한 체제가 유지되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이 역설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정치체제 유지가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실제로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2000만 북한 동포들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유지가 아니라 오직 이 기나긴 굶주림에서 벗어나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 그것뿐이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식량난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적인 고통을 겪었고, 최근 5년 사이에는 가족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아픔을 겪었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이런 민중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화해와 협력이어야 한다. 정작 햇볕이 필요한 곳은 바로 북한 민중들인 것이다.

북한 민중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로 줄여도 연간 식량 부족분 200만 톤의 절반에 불과한 분량이다. 식량과 아울러 비료와 의약품을 지원해야 한다. 내복, 양말, 신발, 비누 등의 생필품도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긴급하게, 대량으로, 그리고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가? - 연간 5,000억원은 지원해야

OECD 가입국, 즉 선진공업국들은 가난한 제3세계 국가를 위해서 지원 부담금을 부과받고 있다. 제일 많이 지원하는 노르웨이는 GDP의 0.99%를 지원하고 있고, 최저 비율을 지원하는 미국은 GDP의 0.1%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액수는 많지만 비율은 제일 낮다. 우리나라도 현재 OECD 가입국이다. OECD 가입국 중에 최소치로 지원한다면 GDP 0.1%를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0억원이 넘는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면 연간 5,000억원 정도는 빈곤국가를 위해 지원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것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북한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과도한 액수가 아니다. OECD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한 최소 비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금이 5,000억원 정도 된다면 옥수수 100만톤에 2,000억원, 약품 1,000억원, 비료 30만톤에 1,000억원, 생필품 1,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소 3년은 지원해야 북한의 민중이 생존의 위협과 고통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통일한 뒤에 몇 배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영양실조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지금 외면하면 통일된 이후 그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참으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북한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협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천천히,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긴급하게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해나가는 가운데 상호간의 경제 협력, 군비 축소

등을 해나가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해결하며 상호 이익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 없이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과 상호 이익이 되게 천천히 협력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과 협력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먼저 화해하고 서로가 협력함으로써 통일로 나아가야만 통일 이후의 후유증이 없을 것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통일국가는 단순히 국토를 합치는 개념에 국한되는 통일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보다 범위를 넓혀 ‘한민족 네트워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600만명 가까운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삶을 공유하고 더불어서 사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 조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 조국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을 적대시하거나 배제하는 닫힌 민족주의 국가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주변 강대국의 대립을 중재하고 완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이익도 함께 추구하는 통일 조국을 건설해 나갈 때 우리는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3. 맺는 말

이런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새로운 시대에 불교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을 것인가?

1) 과거를 돌아보며 - 불교의 전통

2600여 년 전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활동하던 시기도 지금과 비슷한 세계화의 시대였다.

바라문 시대는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나라가 각각 독립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오다가 부처님 출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면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다투었고 결국에는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어 가는 춘추전국의 시대였다. 부처님은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변화의 현실을 직시하셨다. 또한 과거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었고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다. 나아가 가치관의 혼란에 빠진 다음 사람들에게도 바른길을 인도해 주셨다. 부처님은 당시가 신분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태생에 의해서 귀천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신분차별을 부정하셨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함으로써 남자에 종속되어 살수 밖에 없는 당시에 여성에게 스스로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또한 중생의 갖가지 고통이 무지로 인한 욕망과 질투에서 생겨남을 설파하시어 행복한 인생, 평화로운 사회의 길을 열어 주셨다. 문명 후 500년간 흥기한 대승불교도들은 왕이나 장자의 보시에 안주해서 학문적 논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당시의 승려들의 삶이 붓다의 근본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보리심이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구제하는 대자대자비심의 발로에서 출발하여야만 진정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보살사상의 정립과 보살행을 구현하셨다.

불멸 후 1000여 년 경에 흥기한 중국의 선불교도 왕권에 의해 후원되는 불사와 역경과 승려양성이 불교중흥이 아니라 세속사의 일부임을 설파하시면서 누구나 직지인심하면 견성성불한다는 직관의 지혜를 주창하셨다. 신라의 고승들도 신라의 젊은이들에게 삼국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몸소 앞장을 섰다. 또한 원효는 승려의 지위마저 버리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통일

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민중의 아픔을 치유하셨다. 용성과 만해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삼일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시고 갖가지 고통을 겪으셨고 또한 경전을 번역하고 포교당을 내고 유신론을 쓰면서 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셨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불교는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다. 근본불교의 연기론과 중도사상 그리고 승불교의 공사상, 선불교의 견성성불, 원효의 화쟁 사상 등은 오늘 우리에게 갈등의 근원을 꿰뚫어 보고 화해하고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

2) 보살의 역할 - 인도적 지원, 전통 문화의 보존, 평화 운동

돌이켜 보면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다.

일체의 어둠을 밝힌다는 지혜는 세계의 변화를 훤히 꿰뚫어 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여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자비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뒤쳐진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래 불교의 역할은: 첫째,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비전과 실천적 모범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 인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3세계의 기아·질병·문맹의 고통 속에 사는 12억이나 되는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민족적으로 본다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는 2,000만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그리고 NMD 반대, 신무기 구입반대, 군비축소, 핵무기 반대 등 평화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적으로 본다면 욕심을 버리고 부지런히 수행정진해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자신을 해방하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사회건설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종단은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승가대학은 이런 시대에 맞는 승려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특히 불교는 사상적으로는 평화 운동, 역사적 전통으로는 민족운동을 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불교의 장점을 잘 살려서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 가장 앞장선다면 민주화의 시대에 다 하지 못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일시에 회복할 수 있겠다.

Buddhism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Ven. Pomnyun

In the 21st Century, the most urgent task is to achieve the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of Korea.

The Korean peninsula is about the only place that remains to be divided. Still, some would ask whether the unification the only answer.

Current trend of the world as a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is to form regional/ cultural union.

European Union, was initially formed upon the basis of the economic understanding, however, it is evolving into a holistic European community. This trend extends to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with Chinese community in Asia. In the era of regional cooperation, the South Korea and Japan are also moving towards seeking regional cooperation despite the unresolved historical hurts. Hence, even by looking at such trend, the unification of Korea should be realized promptly.

The Inter-Korean Summit has provided us with a new prospect for the unification. It is a missed opportunity since 1994 upon the death of Kim Il-sung. Had we responded accordingly at the time, it could have avoid a massive famine death of three millions of people, together with refugees crisis in China.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The history has

to be recovered for it has been altered and omissions been made during the course of dissemination through war and particularly afte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conciliation process should begin from the understanding and respect from each other at both ends. Understanding not only how they are suffering from the crisis, but the history, cultural differences and value system.

The utmost objective has to be focused on the 20million ordinary North Korean people. To secure the Right to survive of the North Korean people, as the economically developed nation, at least 0.1%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of South Korea should go toward food, medical aid, fertilizers for farming. Overlooking the current issue at the moment would cost even more social complication in future post unification. Thus, the economic co-operation should proceed in terms of mutual agreement, but with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t should come about unconditionally and most immediately.

Buddhism is summed up to two major factors, that is, wisdom and teachings of compassion. Therefore, role of Buddhism is to lead the humanitarian assistance, participation of peace movement and preservation and sustaining the tradition and cultural heritage.

Principal Zen Master, JungTo Society

Chairperson, Good Friends: Centre for Peace, Human Rights and Refugees

Chairperson, Join Together Society (JTS)